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바이든 후보 美 대선 승리 대비하는 투자자들
  - ◇ (초점)-중국의 홍콩 지배, 홍콩 금융시장에는 호재?
  - ◇ (초점)-연이은 완화정책 출구전략 시사에도 시장은 차분..'예단 어려워'
  - ◇ (초점)-하반기 차분히 시작한 원화, 해외 기관들 단기적으론 '약세' 전망 우세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태국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함을 개조한 상자가 장착된 책상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로이터/아티트 페라왕메타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3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98.6	0.2%	-3.5%	-3.5%	유로	1.1248	0.3%	0.3%	-2.3%
100엔 대비	1,115.1	0.7%	-4.7%	-4.4%	엔	107.50	-0.3%	1.0%	0.9%
유로 대비	1,348.6	0.1%	-4.1%	-1.3%	위안	7.0660	-0.1%	-1.5%	-1.3%
위안 대비	169.65	0.2%	-2.3%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5,827.36	3.2%	-9.5%	22.3%
코스피	2,152.41	0.8%	-2.1%	7.7%	나스닥	10,207.63	4.6%	13.8%	35.2%
코스닥	752.18	0.2%	12.3%	-0.9%	S&P500	3,130.01	4.0%	-3.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32.85	3.5%	-3.6%	15.8%
국고채 3Y	0.838%	2.7bp	-52.2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15%	4.4bp	-36.5bp	-40.4bp	미국채 2Y	0.155%	-1.3bp	-140.6bp	-93.7bp
국고채10Y	1.387%	6.0bp	-29.6bp	-26.5bp	미국채 10Y	0.669%	3.0bp	-124.1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0.65	5.6%	-33.4%	34.5%	한국 5Y	24.9bp	-1.9bp	3.8bp	-17.0bp
금(현물)	1,774.79	0.2%	17.0%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186.38	0.1%	-12.1%	4.8%	중국 5Y	44.9bp	-5.0bp	14.2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퍼네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7월 6일(월)>

- 기재부, 2차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16:00)

### <7일(화)>

- 한은, 5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간(10:00)

### <8일(수)>

- KDI 경제동향(12:00)

### <9일(목)>

- 한은, 6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1/4 분기중 자금순환(잠정)(12:00)

### <10일(금)>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0:00), 1차관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14:00)
- 한은,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7월 6일(월)>

- 유로존, 7월 섹터스 지수 (17:30)
- 유로존, 5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6월 마켓 서비스업 PMI (22:45)
- 미국, 6월 고용추이 (23:00)
- 미국, 6월 ISM 비제조업 PMI (23:00)

### <7일(화)>

- 일본, 5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6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5월 경기동행지수 (14:00)
- 중국, 6월 외환보유고 (17:00)

### <8일(수)>

- 일본, 6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5월 경상수지 NSA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멕시코 대통령 회담 (9일까지)

### <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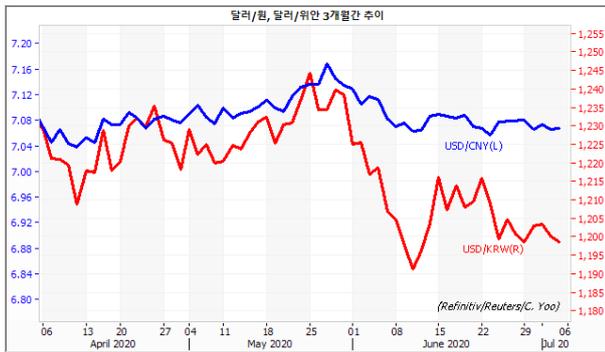
- 미국, 5월 소비자신용지수 (04:00)
- 일본, 5월 기계류주문 (08:50)
-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10:30)
- 중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10:30)
-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1:30)
- 미국, 5월 도매재고 수정치 (23:00)
- 미국, 5월 도매판매 (23:00)

### <10일(금)>

- 일본, 6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21:30)
- 중국, 6월 총통화 공급 증가율 (10~17일)
- 중국, 6월 위안화 신규대출 (10~17일)
- 싱가포르 휴장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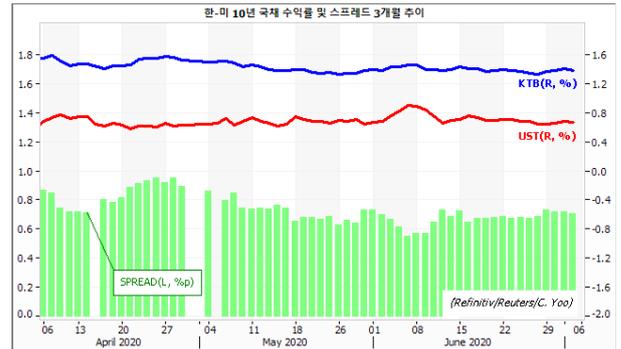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의 좁은 박스권 거래 양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 예상 주간 거래 범위는 1195-1215 원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국내외에서 재확산되고 있지만, 양호한 실물경기 지표가 경제회복 기대를 유지시켰고, 미-중 갈등 우려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주요 경제지표나 주목할 일정마저 많지 않은 터라 원화의 좁은 박스권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환율이 1200 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흐름에 시장참가자들이 익숙해지면서 모멘텀에 따른 포지션 플레이는 둔화되는 모양새다.
-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관련한 헤드라인에 따라 시장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리스크는 물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는 한 원화의 반응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한편, 오는 7 일에는 삼성전자의 2 분기 잠정 실적 발표될 예정이다.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료는 아니지만 실적 결과에 따라 증시 반응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 결국, 이번 주 환율은 그간 주로 거래됐던 박스권 안에 머물며 숨 고르기를 하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대내외 코로나 19 확산 속도와 주가 움직임 등을 반영하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재개 테마가 후퇴하고 있는데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롱이 다소 우세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19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최악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경제 지표는 개선되는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과 별개로 각국 정부가 경제 봉쇄 해제 조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미국을 위시해 코로나 19 재유행 국면에 접어든 국가들이 어떤 수준의 경제 봉쇄 조치를 펴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경제 지표 둔화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자산 가격 움직임에 변곡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 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번 주 대내외 큰 이벤트는 예정돼 있지 않고 주요국 경제 지표도 중요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6일(현지시각) 발표되는 미국의 지난달 ISM 비제조업지수가 그나마 관심을 끄는 정도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분석)-바이든 후보 美 대선 승리 대비하는 투자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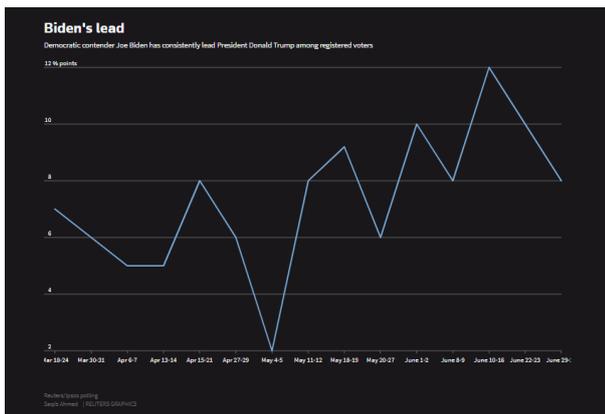
뉴욕 (로이터)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여론 조사 결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면서 투자자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식 포지션을 조정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등 시장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 대선 이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많은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미국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산 관리자들은 바이든의 승리를 가정하고 달러를 매도하고 미국 증시에서 그들의 포지션을 축소시키고 있다.

필 올랜드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증권 담당자는 "대선 여론 조사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시장은 당장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8%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법인세 인하나 규제 완화 등 월가에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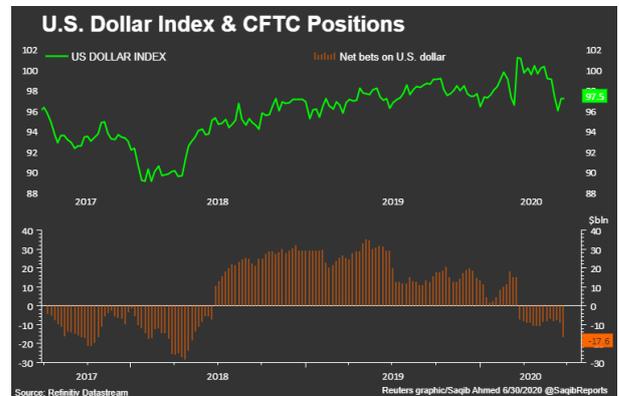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S&P500 지수는 37% 올랐다. S&P500 지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초임시절 각각 85%, 79% 오른 바 있다.

아문디 파이오니어 자산운용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법인세는 28%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17년 말 인하된 부분의 절반 이상이 다시 오르는 것이다.

페레쉬 업아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런 변화는 S&P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을 20달러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달러 포지션을 축소하 아서 래퍼 주니어 래퍼 텐글러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성장을 느리게 만들고 달러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물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순숏포지션은 최근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든 후보 집권 시 예상되는 새로운 규제들은 에너지·금융주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랙록 자산운용은 최근 재정 부양책 감소 우려와 대선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 증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블랙록 애널리스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어느 때보다도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장은 대선 결과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랜드 증권 담당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배당주 포지션을 축소시킬 계획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준이 필요할 경우 미국 경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샘 헨델 레빈 이스터리 파트너스 대표는 "부양책이 계속되는 한 자산 가격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것을 들어 여론 조사에 너무 많은 신뢰를 갖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옵션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대선 전후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머피 서스퀘어나 파이낸셜그룹 파생상품 분야 공동 책임자에 따르면 S&P 옵션 시장은 대선관련 변동폭을 5%에서 5.5%로 암시하고 있다. 지난 세 번의 대선에서 일일 변동폭은 평균 2.92%였다.

#### **(초점)-중국의 홍콩 지배, 홍콩 금융시장에는 호재?**

상하이/홍콩 (로이터) - 홍콩의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이 새로 내놓은 국가보안법에 저항했지만 홍콩 트레이딩룸에 있는 투자자들은 본토의 장악을 환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보안법으로 홍콩의 자유가 약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2차 상장과 본토 자금 유입, 중국과의 금융 관계 강화로 홍콩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일 홍콩 보안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경찰에 수백명이 연행됐지만, 이날 공휴일로 휴장한 뒤 2일 문을 연 홍콩 증시는 상승세다.

지오증권의 프랜시스 룬 CEO는 "중국 기업들이 와서 홍콩에 상장하는 한 파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금융계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다. 어떤 것도 그들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가 '민주주의 투사들'과 '평행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말도 했다.

두 세계의 단절은 홍콩의 극명한 빈부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 본토에 대한 홍콩의 경제적 의존 확대도 보여준다.

홍콩의 사법 및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탈출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떠나게 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도 결국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여파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다. 그래서恒生지수는 지난 분기 3.5% 상승하는데 그쳐 중국 증시의 8.5% 상승이나 MSCI 일본제외 아시아 주가지수의 18% 상승보다 부진했다.

퍼스트상하이증권의 리누스 옌 수석 전략가는恒生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취약한 경제와 기업 실적 부진을 반영해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치고,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가 홍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한다.

삭소캐피탈마켓츠의 케이 반 페터슨 글로벌 거시 전략가는 "재밌는건 미국의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돼 홍콩 주식시장과 홍콩 거래소에게는 경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중국의 장악**

CIMB 프라이빗뱅크의 송성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대기업들의 홍콩 증시 2차 상장이 이어지면서 홍콩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없다. 따라서 새 보안법이 어떤 것을 수반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돈이라는 매력이 큰 유인"이라고 말했다.

회계업체 EY 에 따르면 올 상반기 JD 닷컴과 넷이스트의 2차 상장으로 홍콩은 세계 3위의 IPO 시장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있다.

에버브라이트 선홍카이의 브루스 양 전략가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홍콩달러도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주 중국은 홍콩과 본토를 더 긴밀히 통합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와 인근 본토 도시들 간의 투자 및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자산운용 커넥트 제도도 공개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홍콩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홍콩에서 이루어진 IPO 에서 중국 관련이 82%를 차지했다.

중국계 자산운용사 마이너리티 에셋매니지먼트의 마크 동 창업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홍콩 안정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 **(초점)-연이은 완화정책 출구전략 시사에도 시장은 차분..'예단 어려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최근 정책 당국자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조치들의 정상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책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당국이 한시적 조치 중 일부를 실제로 종료하는 등 정상화 발언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국내 경제·금융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이 일부 조치를 정상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 시나리오를 예단해 '출구전략' 가능성을 반영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 경제부총리·한은 총재의 연이은 '정책 정상화 준비'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한시적 지원 조치에는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완화와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일부 조치의 경우 여전히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달 11일 간담회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을 때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 중 방점이 찍힌 건 '정상화' 부분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달 25일 물가안정 목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확장적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현시점에서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 회복 이후 적절한 시점에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라며 한은이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당국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 대출의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은 데 이어 2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당초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액공급 방식 RP 매입(91일물) 조치의 연장 문제도 막판까지 고심했다. 결국 해당 조치를 1개월 연장해 7월에도 운영하기로 했지만, 한은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내놓았던 유동성 공급 조치의 종료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분명히 드러났다.

▲ 일부 조치 정상화 일리 있지만 한계 분명..성급한 시나리오 예단 안돼

시장참가자들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국내 금융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중앙은행 개입의 학습효과 때문에 당장 국내 시장이 외풍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과도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조치를 정상화한다 해도 시장 불안을 크게 키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 시중은행 운용팀장은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됐던 학습효과 때문에 2차 유행이 온다 해도 큰 동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대규모 원화채권 매수로 한국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부각된 만큼 현시점에서 당국이 일부 정책을 정상화한다 해도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시장이 당국자의 '정상화' 언급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건 그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글로벌 현상인 이상 한국 정책 당국만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B 외은지점 트레이딩헤드는 "당국의 정상화 발언은 통화·재정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현시점에 통화, 재정의 확장 조치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떤 중앙은행이나 정부도 통화·재정 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곳이 없다"며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이 코로나 19 안정화 시나리오를 상정해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참가자들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언제 상황이 돌변해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당국의 출구 전략을 미리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C 은행 자금부장은 "6월에 지급준비금 시장이 흔들렸을 때 한국은행이 처음엔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칙

을 가지고 자금 유출입에 대비했던 곳들보다 결국 '배째라' 하고 버티던 곳들이 싸게 자금을 조달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다시 흔들릴 때 당국이 시장 논리에 맡겨 놓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다들 준비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 은행 이자율 딜러는 "정책당국의 스탠스는 대내외 경제가 U자형 또는 V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듯하다"며 "하지만 경제가 반등했다가 다시 추락하는 W자형 시나리오라면 은행의 부실자산이 급증하면서 대출여력이 크게 낮아지며 금융시스템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 역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장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해왔고 중앙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신용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19의 2차 유행과 함께 경제가 고꾸라질 경우 리스크는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전제해 판단하고 가격에 반영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 (초점)-하반기 차분히 시작한 원화, 해외기관들 단기적으로 '약세' 전망 우세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처럼 견히지 않았지만 막 시작된 하반기에 원화가 이전 경로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아직 작은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해외기관들이 최근 제시한 분기별 달러/원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원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내다보는 곳들이 우세하다.

다만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 속에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진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원화의 단기간 추세에 관한 기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최근 이머징 FX 보고서에서 원화에 대해 '중립' 의견을 내놓은 HSBC는 "원화는 항상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리스크センチメント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면서, 미-중 긴장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원화는 단기적으로 오르내리겠지만 외환당국이 일시적인 변동성과 약세 압력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BC는 제시한 3분기 말 달러/원 전망치는 1205 원이다(2일 증가는 1200.0 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원화는 글로벌 경제 사이클과 연동되는 가운데 최근 재차 불거지는 미-중 관계 악화는 원화에 복병으로 꼽혔다.

바클레이즈는 FX 보고서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달러/원 수준이 이전보다는 낮아지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중 갈등 격화를 고려해 3분기 말 달러/원 환율을 1225 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인 원화 경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하반기 FX 보고서에서 개선될 성장 모멘텀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미약한 성장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이머징 통화들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경기의 상방 위험보다 하방 위험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러/원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실망에 따른 달러 강세 가능성을 감안해 1200 원 또는 그 밑에서 매수를 권고했다. 또한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일 때보다 조정에 따른 원화의 비대칭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SG는 연말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1280 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SG는 미국 대선을 앞둔 갈등 고조 등을 감안해 엔/원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다.

상반기 한때 약세 변동성을 대거 확대했던 원화는 차분하게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해외기관들의 원화 전망은 전적으로 경기 개선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전제는 아직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6월 전망에서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성은 코로나 19 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만약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유의미한 자산시장 훼손을 트리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해외 기관 보고서 및 FX POLL 참고한 달러/원 분기별 전망치:

기관명	2020 3Q	4Q	2021 1Q	2Q
ANZ(6/29)	1180	1170	1160	1150
Barclays(6/16)	1225	1200	1200	1240
BOFA(6/19)	1280	1260	1230	1190
Capital Economics(6/26)	-	1225	-	-
Citigroup(7/1)*	1189.16	1186.63	1182.84	1177.55
DBS(6/29)	1220	1210	1200	1190
FitchRatings(6/29)	-	1180	-	-
Goldman Sachs(6/26)*	-	1280	1250	1200
HSBC(6/24)	1205	1210	1210	1210
ING(6/16)	1240	1200	1160	1160
JP Morgan(6/26)	1200	1190	1190	1180
Standard Chartered(7/1)*	-	1220	1220	1200
Scotia(6/5)	1220	1220	1200	1200
SG(6/24)	1270	1280	1260	1250
Westpac(6/12)	1180	1160	1148	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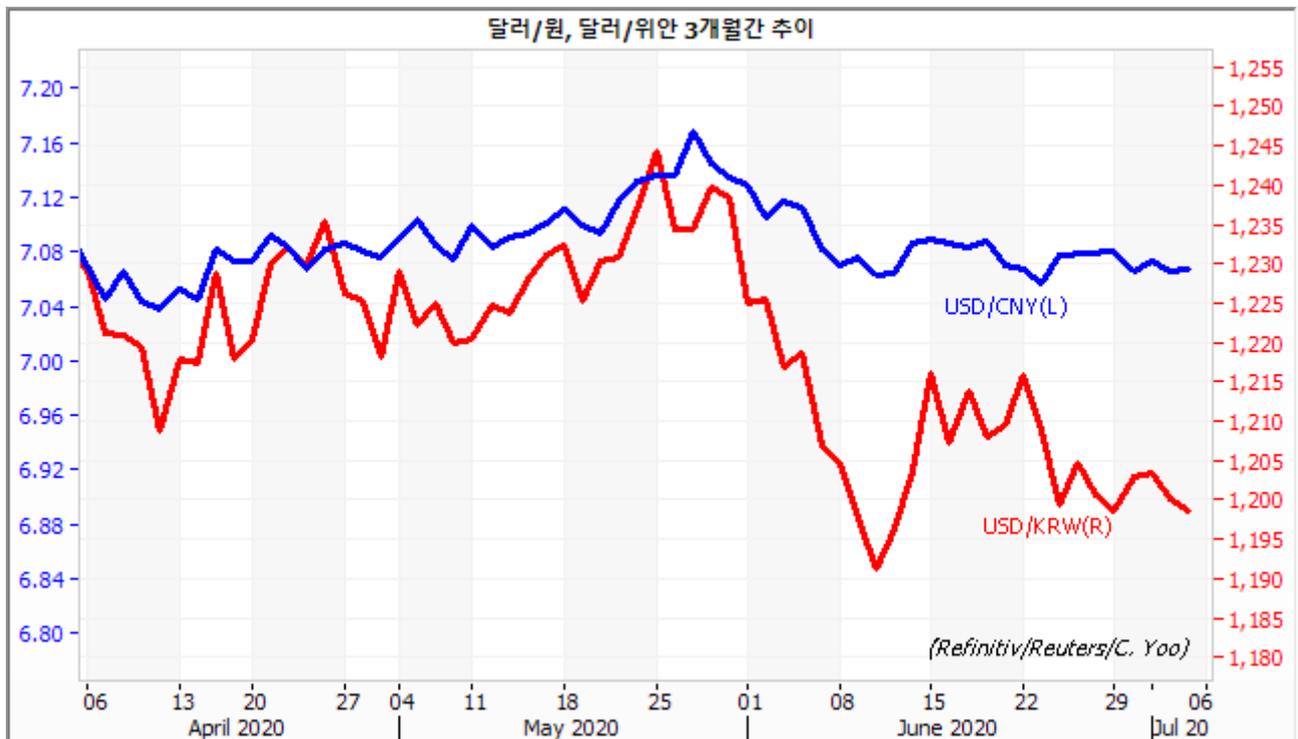
\* GS, SC 3/6/12개월 Citi, 1/3/6/12개월 전망치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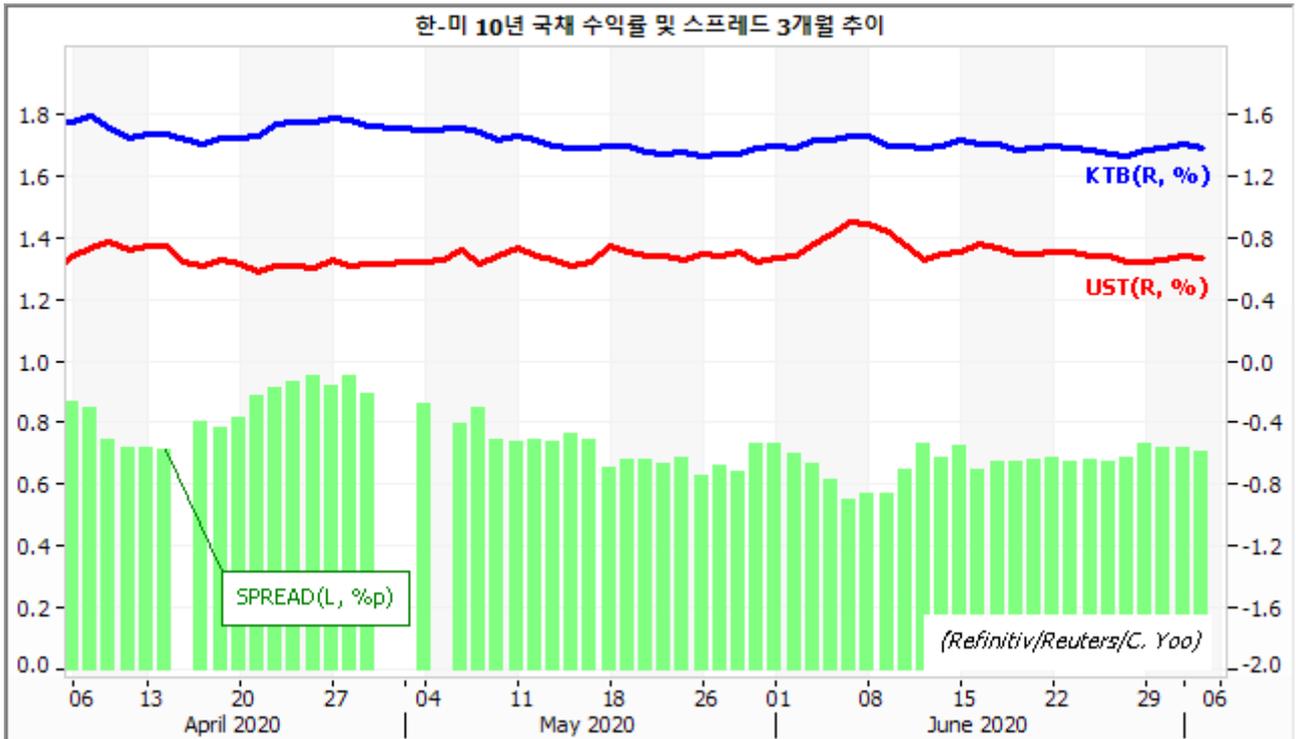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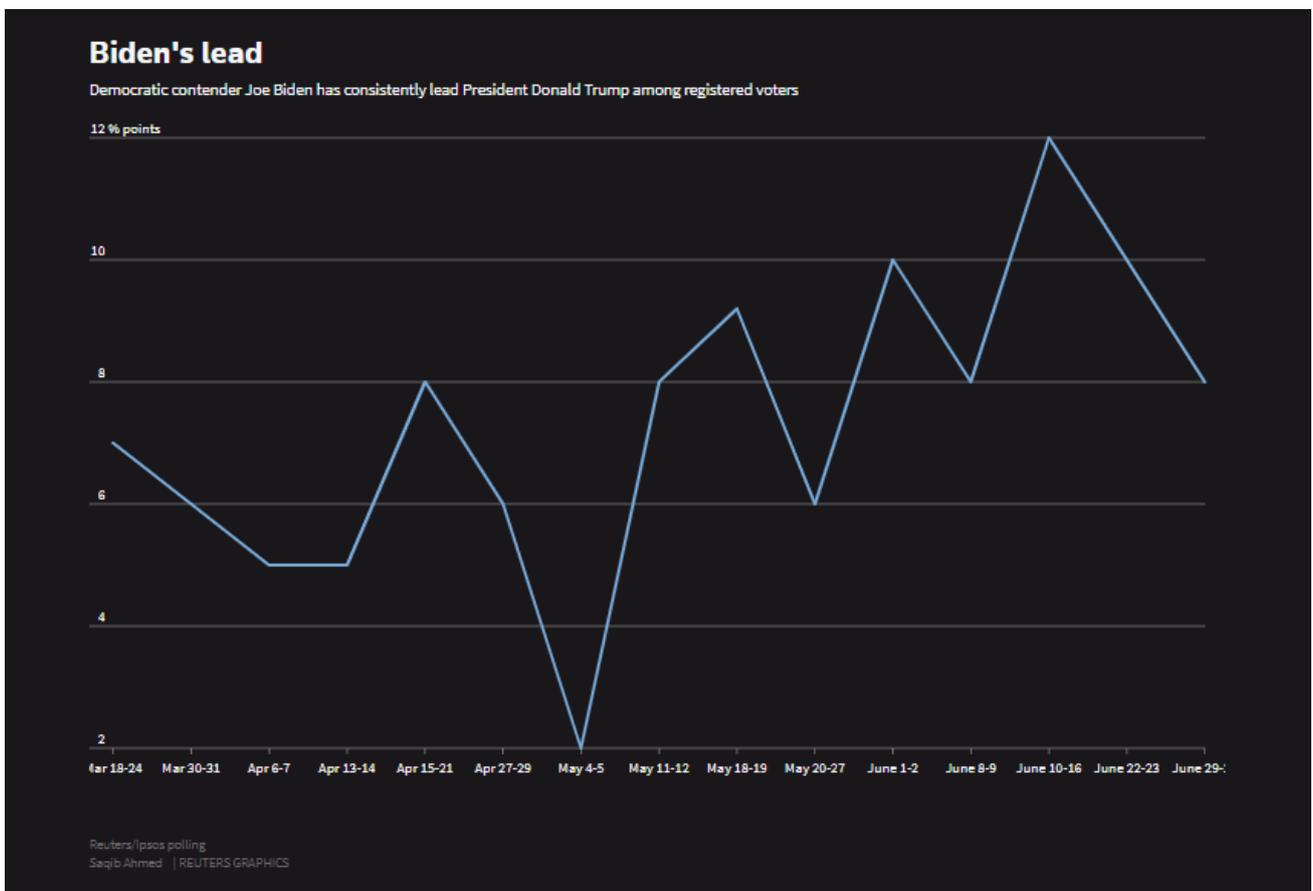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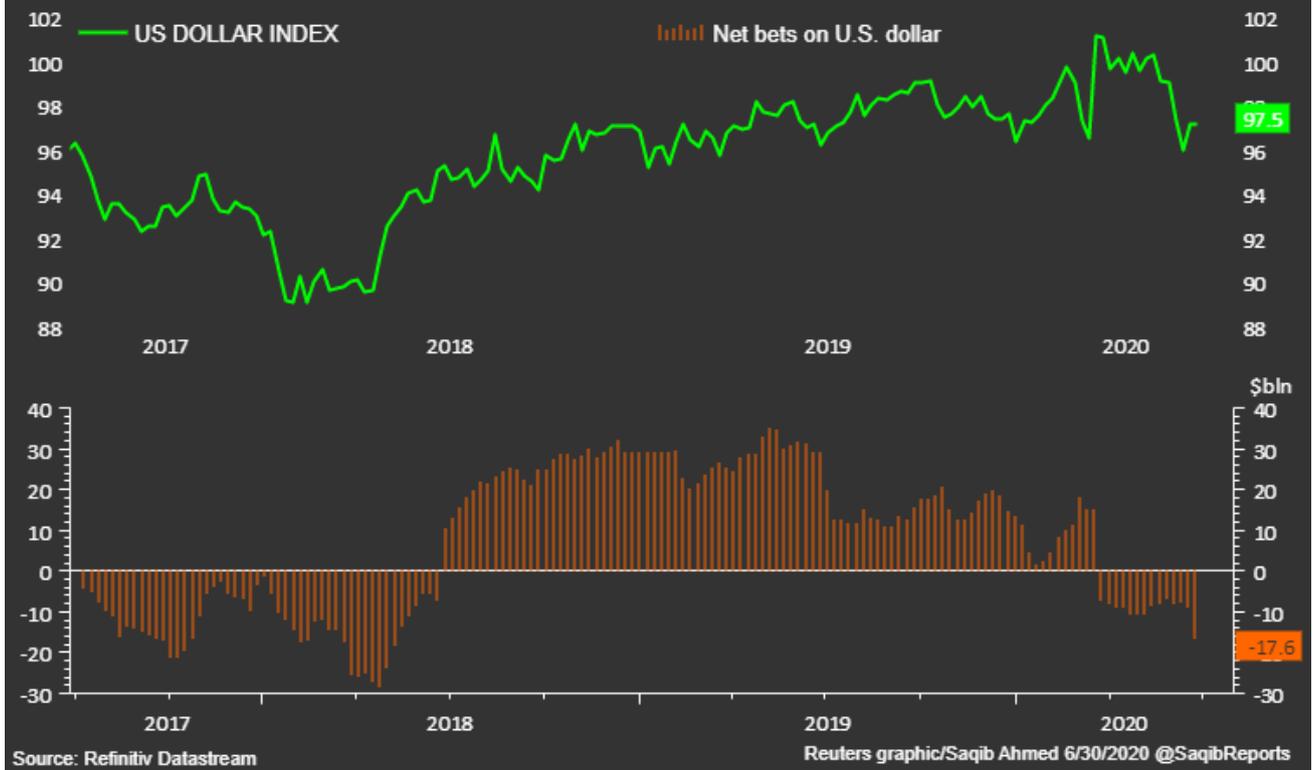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U.S. Dollar Index & CFTC Position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해외 기관 보고서 및 FX POLL 참고한 달러/원 분기별 전망치:

기관명	2020 3Q	4Q	2021 1Q	2Q
ANZ(6/29)	1180	1170	1160	1150
Barclays(6/16)	1225	1200	1200	1240
BOFA(6/19)	1280	1260	1230	1190
Capital Economics(6/26)	-	1225	-	-
Citigroup(7/1)*	1189.16	1186.63	1182.84	1177.55
DBS(6/29)	1220	1210	1200	1190
FitchRatings(6/29)	-	1180	-	-
Goldman Sachs(6/26)*	-	1280	1250	1200
HSBC(6/24)	1205	1210	1210	1210
ING(6/16)	1240	1200	1160	1160
JP Morgan(6/26)	1200	1190	1190	1180
Stadard Chartered(7/1)*	-	1220	1220	1200
Scotia(6/5)	1220	1220	1200	1200
SG(6/24)	1270	1280	1260	1250
Westpac(6/12)	1180	1160	1148	1135

\* GS, SC 3/6/12개월, Citi, 1/3/6/12개월 전망치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